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1 Number 02 **02** 2013



창세기를 통한 복음4

“보시기에 좋았더라(*good*)”와 “좋은(*good*) 소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good*)”이다. 이런 ‘시작’은 다른 과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묘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처음부터 좋게 창조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이런 시작만이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계가 필요 없이 처음부터 좋게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복음을 “Good News(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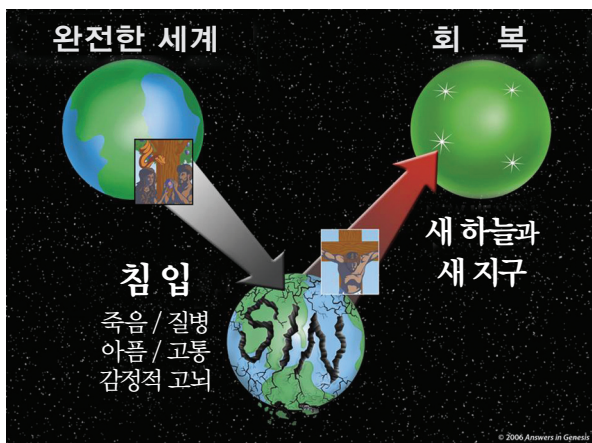
음부터 좋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 좋은 소식이 또 필요할까? 그럼, 창조와 지금 사이에 무슨 나쁜 소식(bad news)이라도 있었던 말인가? 그렇다. 분명히 있었다. 바로 첫 아담과 하와의 범죄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 죽음이 초래됐고, 가시덤불과 영경귀가 나오고, 홍수 심판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발생하고, 바벨탑 이후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일련의 점점 나빠지는 사건을 겪은 것이다. 이 언어의 혼돈과 함께 각 민족들이 흩어지며, 또한 세대를 넘기며 정말 처음에 좋았었는데, 자신이 하나님 닮은 그분의 형상인지, 왜 이런 불편한 추위와 더위의 날씨를 겪고 있는지, 왜 다른 나라와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인지 모두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이 황폐된 상황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것이다.

다 잊어버린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이스라엘(롬 3:2)에 맡기셨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이때부터 성경이 이스라엘을 떠나 각 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살게 되었고 처음 좋았던 그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Good News(좋은 소식)이다. 처음이 좋았고(good) 범죄함의 나쁜(bad) 일이 있었고, 다시 좋은(good)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만을 복음이라 결코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약,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 아마 ‘복음은...’으로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구절은 로마서 1장일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2-4) 바울 사도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시작하며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 성경은 당시 구약성경을 의미한다.

선지자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쓴 저자들만을 말하는 것일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라고 하며 모세를 여호와와 대면했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한 나쁜 소식이 기록된 책이 그가 쓴 창세기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성경을 복음서라고 부른다. 이 복음서도 결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예언부터 시작한다. 누가복음은 3장에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아담을 넘어 하나님부터의 족보를 시작한다. 요한복음은 1장이 ‘태초부터 시작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자임 언급한다(요 1:3).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좋았지만(good)–나빠졌고(bad)–예수님을 통해 좋아진(good) 일련의 성경의 역사를 항상 함께 언급한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죄의 중대함,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우리의 참 역사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

졌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

문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좋았던(good)’ 것과 범죄로 인한 ‘나빠진(bad)’ 사실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가 진화와 멸종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었었다는 진화론 교육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 인들도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수십억 년으로 길게 늘여서 해석하곤 한다. 예를 들면, 1800년대 말에 유럽에서 등장한 유신론적 진화론, 1900년대 말에 북미에서 등장한 점진적 창조론,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 등장한 다중격변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십억 년의 진화과정을 성경과 타협하려고 시도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진화, 멸종이 반복되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즉 이런 타협 이론은 성경과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창세기 1–11장을 하나의 비유와 시로 보려는 노력들도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접근 역시 진화를 믿기 때문에 나온 자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동안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가시뿔불이 생기게 된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된 사건들은 복음이라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 누구의 의도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혁명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론은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나빠진(bad) 상황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미 성경을 기록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세속화된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Good News인 복음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전할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의 가장 큰 과제이다. 참으로 어렵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뿌리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진화론이라는 가시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창세기에 기록된 사실부터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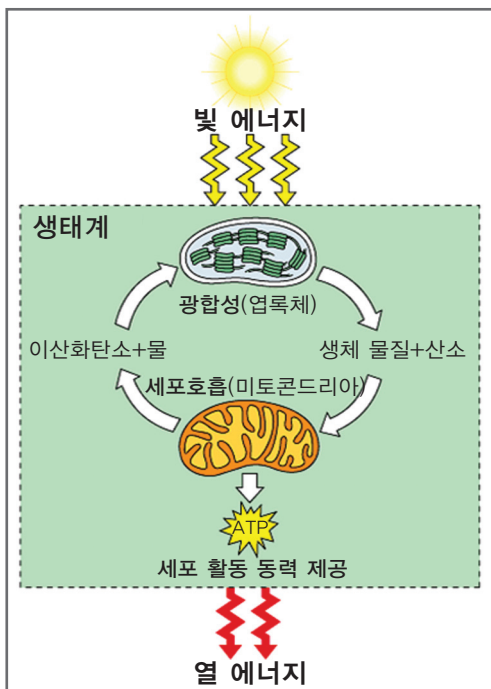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생명체의 신비, 목적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법칙들 중에 열역학 제 2 법칙이란 것이 있다. ‘닫힌 계는 점차 열적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변화하는데 이 때 무질서도인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향해 계속 변화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 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장 튼튼한 자동차라 해도, 단단함의 대명사인 바위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폐차되고, 마모되고 만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완벽성을 자랑할 수가 없다. 심지어 물질이 아닌 윤리와 같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언어의 문법과 같은 비 물질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해 진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낡아지고 무질서해지는 이 열역학 제 2 법칙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긴다.

그런데, 점점 낡아지고 무질서해지는 우주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생명체들이다. 생명체들은 무질서나 낡아짐과는 정 반대로 점점 질서를 잡아 나감으로써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된다. 식물이나 동물들은 스스로 점점 자라감으로써, 무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적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혼하고 하찮게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다 기적을 만드는 존재들이다. 물론 성장 과정도 생물이 존재하는 환경과 함께 보게 되면 열역학 제 2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들이 질서를 갖추는 것은 주위 환경에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성장하는 생명체는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물체가 아닐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체들이, 간단한 물질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연히 조합되어 세포가 만들어 지고, 세포가 수 억 년 동안 진화하여 지금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물질들 스스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무질서해 지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열역학 제 2 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믿음이다. 또, 고도의 질서를 가진 생명체가 스스로 생겨 났다고 믿는 것은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믿음은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런 비판들을 피하기 위해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으므로 우주적으로는 열역학 제 2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생명체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죽어 있는 무생물이고 다른 한 나무는 살아 있는 나무라 하자. 죽은 나무와 살아 있는 나무는 태양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아 있는 나무는 더욱 성장하겠지만 죽은 나무는 반대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빠르게 부서진다. 물체가 에너지를 받는다고 다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살아 있는 나무가 햇빛을 받아 성장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는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 생명체는 무질서하게 하는 힘을 거스르고 질서를 잡아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

생명체인 살아 있는 나무나 무생물인 죽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같다. 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 속에는 무생물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목적률(telonomy)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 속에는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의도와 기능이 들어 있다.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그 차이의 일부다. 엽록체는 햇빛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엽록체가 받아들인 빛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당분으로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고, 이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체가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만들게 된다. 이 때 엽록체에서 고정 되었던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이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의 모든 부품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과연 누가 이 의도를 생명체의 부품 속에 집어 넣어 생명체가 되게 한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고(요한복음 14:6) 만물도 그로부터 왔다고 한다(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6). 창조자며 생명 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체 속에만 목적률을 삽입 하였다는 설명이야말로 열역학 제 2 법칙을 이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 탐사여행

EM 탐사여행-

파사데나 드림교회, 한빛교회, 알바인 온누리교회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는 김선욱 박사님께서 인도하시는 EM 탐사여행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마지막 주에는 파사데나 드림교회(담임목사 이성현)와 샌디에고 한빛교회(담임목사 경수일)가 함께, 2013년 첫 주에는 알바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권혁빈) EM이 출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진화론에 얼마나 젖어있는지 확인했을 뿐 아니라 노아홍수를 비롯한 성경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확실한 방법인 EM 탐사여행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드림교회/한빛교회 EM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얼마인 온누리교회에서는 부모님들만을 위한 세미나를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15차 유학생 탐사여행

지난 1월 2-3일 유학생 탐사여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 출발해 온 유학생 탐사여행이 벌써 15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미 전국 각지에서 유학생 4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일찍 마감되어 참가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와 얼마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권혁빈)에서 매년 후원해 주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다음 16차 탐사여행은 오는 8월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월드미션대학 겨울 특강

매년 진행되는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경명 목사)의 겨울 특강이 1월 2일-12일까지 이재만 부회장과 최우성 박사의 공동 강의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론들”이란



과목으로 열리는 이 강의는 본 대학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석사과정(M. Div)의 학생들에게까지 수강이 가능하게 되어 교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창조과학 특강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에서는 매년 “창조주 하나님”이란 주제로 12회의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 주 4회

씩 세 차례의 집중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1월, 5월, 그리고 10월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매 번 새로운 성도들이 참여 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새로운 건물로 이전

창조과학선교회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거리에 있는 Norwalk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인 ITCM으로 인해 숙소가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새 건물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번 건물 이전으로 창조과학선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4기 ITCM 학생들이 이미 환경이 훨씬 좋은 새 건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건물 구입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한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will)이 (눅 6:10)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새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물 주소(Mailing Address):

P.O. Box 819, Norwalk, CA 90650

사무실 주소(Office Address):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전화 번호 : 213-381-1390

e-mail : HisArk@gmail.com



창조과학 서적을 구입하는 EM 청년들



제 4기 ITCM-1 강의



AiG 회장 Ken Ham Gkym 컨퍼런스에서 강의

미국 창조과학의 대표적 단체인 Answers in Genesis의 회장인 Ken Ham이 지난 12월 28일 San Diego에서 열린 미국 2세를 위한 컨퍼런스인 Gkym Festival(세계 한인 청년선교축제)에 주강사로 초청되어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에 물든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인도했는데 참가자들은 이 시대와 자신이 얼마나 진화론에 물들었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en Ham은 진화론이란 산을 넘지 않고는 도저히 창조자 예수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후에 그 반응은 바로 책 구입을 하는 장면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좀처럼 책 구입이 어려운(!) 2세들이 AiG에서 마련한 임시 서점에서 창조과학 책을 구입하느라 장사진을 친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 자신들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2세들에게 창조과학 세미나가 더 활발하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제 4 기 ITCM (창조사역 집중훈련)

지난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의 일정을 잠시 뒤로 하고 창조과학 사역을 배우기 위해 젊은이들 6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예전에 비해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 진행 되고 있는 창조사역 집중훈련을 통해 창조와 그 후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깊이 있게 배워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pace Sciences

성경을 믿지 않는 천문학자는 하나같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천문학자들은 성경의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뚫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사 44:24)라는 말씀을 무시한다. 201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주 최근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과학적 발견이 있었다.

2012년 초, 무신론적 물리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s)는 어떻게 우주가 “무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설명도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오로지 무가 아니라 “유로부터”의 설명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설명은 기발하긴 했지만, 하나의 유인 상술에 불과했다. 한 뉴스에서는 그의 책에 대해 “어떤 설명도 실제 “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빅뱅이론(Big Bang theory)이 올해 큰 인기를 얻었다. 한 보고에서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조그마한 은하를 설명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무작위적으로 있는 물질이 은하 질량의 약 0.1% 정도의 질량인 블랙홀과 함께 점진적으로 은하로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그러나 최근 14%나 되는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관측되면서 은하 형성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게다가 빅뱅이론에 따르면, 쌍성(binary stars)들의 공전주기가 5시간보

다 반드시 길어야 하는데 그것의 반밖에 되지 않는 쌍성들이 발견되었다. 천문학자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 것”이라며 놀랐다. 거대한 블랙홀과 불가능한 짧은 주기의 쌍성의 발견은 빅뱅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천문학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블랙홀을 가진 은하들이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빅뱅이론에 의하면,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진화가 덜 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나 멀든지 가깝든지 은하들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만약 우주가 137억 년 되었다면 왜 별과 은하에 진화적인 과정이 보이지 않는 걸까?

2012년 다른 발견 또한 우주의 성경적 젊은 연대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희미한 어린 태양(faint young sun)”에 대한 모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요컨대, 만약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면, 지구 초창기에 태양 빛이 너무 약해서 지구의 생명체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모순을 피하고자 이유 없이 그때에 태양이 밝게 빛을 냈을 것이라고 답을 한다. 생명체가 진화하기 위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에너지를 태양이 주었다는 말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태양과 지구가 같은 주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빅뱅이론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많은 천문학 소식 중에서 젊은 우주 창조론이 2012 자기장 측정결과에 따라 가장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과학자들은 밀키웨이 은하(Milky Way galaxy)의 자세한 지도를 만들어냈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 은하 자기장의 기원을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창조과학자인 러셀 험프리 박사(Dr. Russel Humphreys)가 2008년에 만약 하나님께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벧후 3:5)의 기록대로 은하를 창조하셨다면 은하들은 같은 자기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추측이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험프리 박사는 또한 1984년에도 그의 성경적 창조모델(water-first creation model)에 기초해서 수성이 단지 몇천 년 전에 창조되었을 때로부터 남아있는 자기성이 지각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2012년 수성 지각 자기장의 강도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결과는 수성의 오랜 연대가 아닌 젊은 연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최근 성경적으로 추측한 우주 창조 이론들이 매우 잘 제시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빛이시고, 자연 스스로 아닌 그분 홀로 “하늘을 펴셨다”는 사실이 더욱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Brian Thomas, M.S. Science Writer at the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번역: 조희천 (창조과학선교회 2기 인턴쉽 및 제 1기 ITCM-1 수료자)

점진적 창조는 무엇이 문제인가?(3)

CREATIONWISE

당신은 어느 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기록된 책

혹은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창조의 순서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진보적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십억년에 걸쳐 지구상의 종들을 점점 발달된 순서로 창조했다고 믿는다. 즉 새로운 종들이 멸종된 종들과 교체되면서 단순한 생물들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절정에 다다랐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순서가) 창세기의 창조 설명과 순서가 모순될지라도 지구상에 생물들이 진화순서로 발달된 것으로 여긴다. 진화론은 첫 생물형태가 해양생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육식식물을 먼저 창조하였다고 말한다. 파충류는 새보다 먼저 있었다고 가정하지만, 성경은 새가 먼저였다고 말한다. 진화론자들은 육식동물이 고래 이전에 생겼다고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고래를 먼저 창조했다고 가르친다.

캘빈 대학의 지질학 교수였던 데이비스 영(Davis Young) 박사는 이러한 모순을 알아차린 후에 “날-시대” 이론을 버렸다. 왜 그것을 버렸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성경 본문은 식물들이 셋째 날 그리고 동물이 다섯째 날 등장한다.

그렇지만 지질학에서 무척추동물들은 식물들이 땅 위에 거점을 얻기 오래 전에 바다에 가득 차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지구가 이미 존 재한 후에 넷째 날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과학과 명백한 대 립이 있다. 천문학은 태양이 지구보다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67번째의 성경 책

로스 박사는 자연은 성경만큼 완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 전문을 소개한다:

모든 것이 성경의 66권의 책에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성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67권째 책-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늘에 새겨 놓은-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기록은 완전하고, 믿을만하며, 진실됨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인 성경 66권처럼... 그러므로 천문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들의 시도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했던 진리 중에 일부이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내포한다.

로스 박사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죄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주는 저주 받았을 뿐 아니라 사담도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 죄짓고 오류가 있는 인간이 그 증거를 해석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계시의 책만큼 완전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과학적인 주장은 분명히 오류가 있는 가정들과 타락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말한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계시한 원리 즉 성서의 조명하에서 연구할 때만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일반 계시)는 죄의 방해로 인해 애매해졌으며 왜곡되었다. 그리고 다시 공포되고, 교정되고, 해석된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두 번째 출처라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의 조명하에서 자연을 해석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때 옳바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각을 성경 위에 확립해야 되지 과학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 계속.

International Grace Ministry EM 탐사여행

9/7-9/13, 2012

이번 그랜드케년 여행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자연을 보았습니다. Now I Know how to find 1st layer & 3rd layer. 땅이 갈라져 나라가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이런 엄청난 근거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 Jane Jung

이번 그랜드케년 관광이 세 번째 여행이었지만, 지난 두 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저 와! 하고 놀라기만 하고 돌아 왔습니다. ... 이 그랜드케년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작품이라는 것을 느끼며 이 모든 사실을 전하는 내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김영만

이번 Tour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더욱 더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김명숙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잘 났다고 목청 높여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그랜드케년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알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미물에 불과한 나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우

이번 그랜드케년 여행을 통해 우리의 죄 성과 자만함은 하나님을 멀리하려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이 자연이 얼마나 그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evolution theory를 믿고 거짓 된 사실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Amir Lee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신 증거들을 보고 그 동안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잘못된 사실이란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단지 '믿음'만을 내세워 전도하기 보다는

확실한 지식과 증거들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예수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Clear 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어릴적 제가 늘 가졌던 질문은 Discovery National Geography Chanel을 보면서 인간을 Food Chain 의 Top 에 있는 동물과 비교할 때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모든 동물을 rule over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생각으로 인간은 추위를 견디는 털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한데, 어떻게 Rule over 하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 Suzanne Koo

인간이 얼마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만큼인가! 먼지일 뿐인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분의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랜드케년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깊이 새기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 Anne Cl

이번 여행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선교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선교지에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 차훈 선교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김박사님께서 말씀으로 증거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실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화론이 틀렸는가를 분명하게 증거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 김승희

과학자인 저는 그랜드케년의 생성과 기원에 대해 참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 되었습니다. ... 머지않아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하면서,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한정희 집사

창조과학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과 만드신 것들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이고, 그 동안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 구민주 집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저는 그랜드케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케년의 재앙의 흔적 속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고, 세상과 사람 지음을 한탄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는 진리 앞에 난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이상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Julia Jo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2/2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 (최우성)
 2/15-17 오클라호마 노만 한인침례교회(이재만), OK
 2/22-24 퍼듀한인 장로교회 (이재만), IN
 2/26-6/18 베데스다 대학교 강의 (매 주 화요일 8:00 -10:30pm, 최우성), CA

3/1-25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3/2-3 이한교회 (이재만), 한국
 3/9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한국
 3/10 행복한교회 (이재만), 한국
 3/11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한국
 3/12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3/13 한동대학교 (이재만), 한국
 3/14 생터 성경사역원 (이재만), 한국
 3/16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이재만), 한국
 3/17 평촌평성교회 (이재만), 한국
 3/18 생터 성경사역원 (이재만), 한국
 3/19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3/20 한동대학교 (이재만), 한국
 3/21 생터 성경사역원 (이재만), 한국
 3/23-24 명동교회(이재만), 한국

4/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침례교회,KM), 이재만
 4/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침례교회,EM), 김선욱
 4/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4/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부), 이재만
 4/22-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회 대전지부), 이재만

4/29-5/3 예수전도단 DTS (이재만), CA
 5/10-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